

□ 병아리
생산중단실시에
따른 평가회 중계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 정리/이 인수 기자

- ▲평가회의 모습(상)
- ▲부화란 폐기처분모습(하)

**육계부화란
폐기처분은
총 45개업체가
참여하여 모두
4백7십9만여개가
폐기처분 되었다는
사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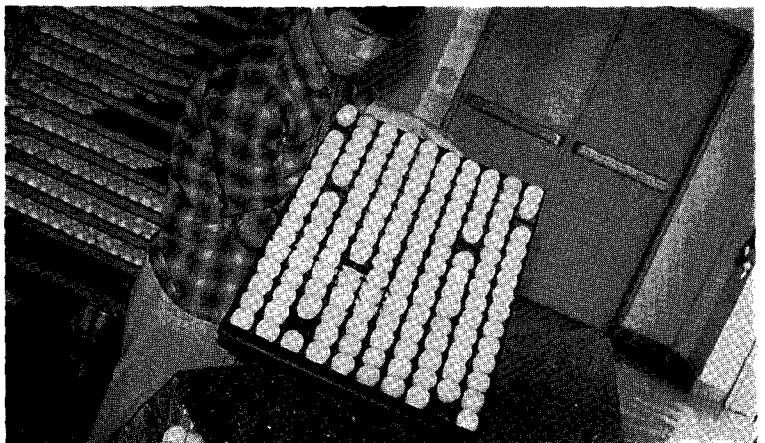
최 근 종계·육계·채란계 할것 없이 과잉생산, 소비부족, 기타요인 등에 의해 국내양계 산업의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간 종계·부화업 및 무허가 부화장 난립으로 말미암아 과거보다는 생산라인이 증가하여 최근 육계병아리값이 연이어 하한선이 무너지면서 적자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부화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불황타개를 위한 전국 종계·부화인 대회 및 종계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집중토의한 결과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육계병아리 분양을 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육계부화장들이 부화란을 폐기처분하는 극한 처방이 내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를 놓고 지난 5월 19일 종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부화란 폐기처분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주일분량의 육계부화란 폐기처분 업체 및 폐기량을 살펴보면 총 45개 업체가 참여 4백7십9만여개가 폐기처분이 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일주일 전체물량을 약 7백5십만개로 추정해 보았을 때 약 64%에 해당되는 물량이 식란이 아닌 그것도 몇일 후에 분양되어질 병아리를 폐기처분했다는 사실은 우리 양계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는 우



며칠 후에
분양되어질
병아리를 폐기처분
한다는 사실은 우리
양계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표1. 육계부화란 폐기처분 참여업체 및 폐기량 (일주일간)

구 분	업 체	총 계
경기도	천호(960), 봉림(300), 축석(10), 강남(400), 대영(28), 녹산(8), 양지(200), 충청(90), 우화(19), 경인(40), 서울인티(45), 홍일(40), 너바(10), 조은(25), 풍전(40), 독바위(30), 대용(163), 기룡(116), 연동(80), 창우(80), 대지(69), 한일(100), 임한(10), 이천(52),	(2,915)
강원도	신세기(20), 계림(15),	(35)
충 북	호암(15), 명지(20),	(35)
충 남	중원(100), 성현(70), 영진(71), 신기(200), 유화(40), 삼화(250), 복지(150),	(881)
전 북	하림(500)	(500)
경 북	신기(200), 대경(100), 천호(25), 하양(11), 봉산(25),	(361)
경 남	대한(15), 반성(15), 협진(8), 괴조(25)	(63)

리 축산업에 있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가슴아픈 현실이기도 하다. 우선 일주일간 부화란 폐기처분된 자료통계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두고 믿을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떠한 감시체제하에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처분 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다 정확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미참여 업체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구해 나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데 정확한 자료조사가 뒷받침 해주지 못하여 어떠한 제제조치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또한 같은 업계 테두리내에서 “더불어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보디나온 발전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의식 및 신뢰성 결여, 언행(言行)불일치로 인해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룡처리기로 결정한 기간에도 야간에 몰래 병아리를 판매한 업체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볼 때 같은 업계에

**업계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리를 과감히
청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사하면서 이기적인 생각들이 상존하고 있음도 제기되었다.

물론 자료에 대한 신빙성 문제는 6월경이면 그 당시 입추된 병아리가 출하할 시기임으로 가격 형성만으로도 평가될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축산업계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성 결여와 나혼자만이라는 “이기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되었다.

또 동참하지 않은 것보다 참여함으로써 불이익이 돌아왔다고 하여 책임전가론으로 인해 한때 목소리가 높아져 평가회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하였는데 만약 참여함으로써 불이익이 온다면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대두되어 회의진행에 곤욕스러움을 주기도 하였다.

생산감축기간 이전에 병아리 가격이 150원 유지되었으나 이 기간중에는 250~300원까지 폭등하는 현상이 초래되어 오히려 입추과열현상이 빚어졌다는 점과 이번기회에 종계·부화업체와 육계업간의 불신감만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와 이에 대한 사후대책도 분명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도 제기되었다.

결국 참여한 업체파악과 미참여 업체에 대한 제제조치를 두고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나 주체가 불분명하고 사전 연구·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실행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가 돌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이번기회를 통해 단합된 힘을 보였다는 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종계·부화인간의 신뢰성 회복문제, 둘째 육계업체와 종계·부화업체간의 신뢰성 회복에 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되었다.

